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12. 13.(금) 06:00 < 12. 13.(금) 석간 > 배포 2024. 12. 12.(목)

집단에너지업계, 안정적인 열 공급 및 청정열원 활용 다짐

- 2차관, 집단에너지협회 창립 20주년 및 집단에너지의 날 행사 참석

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2.13(금)에 집단에너지협회 주최로 열린 「2024 집단에너지의 날」 행사에 참석하였다.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제정된 1991. 12. 14일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'집단에너지의 날' 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, 특히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창립 20주년의 의미를 기념하여 올해 행사가 개최되었다.

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, 지난 20년간 집단에너지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여 '23년 말 기준 총 378만 가구(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9%), 전국 산업단지 47개 사업장에서 집단에너지를 사용 중이다. 열 공급중단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'사업자 간 긴급 자재 지원체계' 구축, 사회공헌기금(100억원) 조성을 통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도 전개해왔다.

* (지역난방) 04년 133만 가구→23년 378만 가구 / (산업단지) 04년 21개 사업장→23년 47개 사업장

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, 1970년대 말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집단에너지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언급하였다.

특히, ▶집단에너지 발전기의 대용량화 추세에 대응해 액화천연가스(LNG) 용량시장 입찰제도를 안착시켜 전력수급 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고, ▶분산특구를 활용하여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, ▶집단에너지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.

집단에너지 업계는 에너지 효율개선과 청정열원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 열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탈탄소화를 선도하고, 노후 열수송관 개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. 아울러 정부는 「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」과 「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」을 수립하여 집단에너지를 포함한 분산에너지 이용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전력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	책임자	과 장	권영희 (044-203-3920)
		담당자	사무관	박만희 (044-203-392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

집단에너지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및 2024「집단에너지의 날」행사 계획(안)

□ 행사 개요

○ **일 시** : 2024. 12. 13.(금) 11:00 ~ 13:00

* 집단에너지사업법 제정일: '91. 12. 14.

○ **장 소** :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국화홀(2층)

○ **주 최** : 한국집단에너지협회

○ **참 석** : **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**, GS파워, 한국지역난방공사, SK E&S 등 집단에너지사업자 100여 명

□ 주요 내용

○ 집단에너지의 날 • 협회 창립 20주년 행사 및 유공자 포상

○ 집단에너지 분야 특강 및 향후 발전방향 논의

□ 진행 순서

시 간		주요 내용	비 고
11:00~11:10	10`	■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/ 참석자 소개	
11:10~11:15	5`	■ 기념사	한국집단에너지협회장
11:15~11:20	5`	■ **축사**	**산업부 제2차관**
11:20~11:25	5`	■ 기념 영상	
11:25~11:30	5`	■ **케익 커팅식 및 기념촬영**	
11:30~11:50	20`	■ **유공자 포상***	**산업부 제2차관**
11:50~12:10	20`	■ 집단에너지의 날 특강	숙명여대 임용훈 교수
12:10~12:55	45`	■ 오찬 및 토론	
12:55~13:00	5`	■ 폐회	

* 포상훈격 및 수량: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0점